

2012년 11월 (제 2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동삼동) Tel | 051.309.1900 Fax | 051.309.1999



Contents

Part 01	첫만남 바다로 가자	01
Part 02	열린마당 해양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상징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03
Part 03	박물관 둘러보기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서관 기획전시 갯벌전	05
Part 04	소장품 이야기 조선통신사선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Miracle in the Museum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바다로 가자

김영랑

바다로 가자 큰 바다로 가자
우리 인젠 큰 하늘과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가졌노라
하늘이 바다요 바다가 하늘이라
바다 하늘 모두 다 가졌노라
웁다 그리하여 가슴이 뻐근치야
우리 모두 다 가자꾸나 큰 바다로 가자꾸나

우리는 바다 없이 살았지야 숨막히고 살았지야
그리하여 쪼여들고 울고불고 하였지야
바다 없는 항구 속에 사로잡힌 몸은
살이 터져나고 뼈 튀겨나고 뉘이 흩어지고
하마터면 아주 껴꾸러져버릴 것을
오! 바다가 터지도다 큰 바다가 터지도다.

쪽배 타면 제주야 가고 오고
독목선(獨木船) 왜(倭)섬이사 갔다 왔지
허나 그제 바다러나
건너뛰는 실개천이라
우리 삼 년 걸려도 큰 배를 짓자꾸나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우리 큰 배 타고 떠나가자꾸나
창랑을 헤치고 태풍을 걷어차고
하늘과 맞닿은 저 수평선 뚫으리라
큰 호통하고 떠나가자꾸나
바다 없는 항구에 사로잡힌 마음들아
특 텨고 일어서자 바 닥 네 집이라

우리들 사슬 벗은 뉘이로다 풀어놓은 겨레로다
가슴엔 잔뜩 별을 안으렴마
손에 잡히는 엄마별 아기별
머리 위엔 꼬득 보배를 이고 오렴
발 아래 짝 깔린 산호요 진주라
바다로 가자 우리 큰 바다로 가자

김영랑 (1903-1950) 본명은 윤식(允植)
전남 강진 출생. 일본 아오야미[靑山]학원에서 수학. 『시문학』으로 등단. 『시문학』 동인. 그는 목적의식을 배제하고 유미적이며 이상적인 순수시를 썼다. 그의 시는 잘 다듬어진 언어를 재료로 정교한 울조를 이루며, 이를 통해 인간 내면의 섬세하고 영롱한 사정을 노래하였다.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설움받은 민족의 희망을, 봄을 기다리는 작자의 마음에 의탁하여 읊은 격조 높은 서정시이다. 시집으로는 「영랑시집」이 있다.

열린마당

해양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상징

하늘이 감동했나 보다. 우리나라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해양인들이 지난 10여 년간 지성으로 공을 들인 결과 드디어 울여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문을 열었을 때, 태풍과 폭풍이 많은 계절임에도 바다와 하늘이 무척 맑았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한, 두 명의 주도나 노력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전 해양수산부와 현 국토해양부의 공무원이 얼핏 계산해도 연인원 100명이 넘는다. 박물관의 기획, 설계, 전시 구상에 참여한 인원도 그에 못지않았다. 해양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의 오지까지 발품을 판 학예사들 그리고 자료를 감정하고 평가한 전문위원도 연인원 100명이 훌쩍 넘는다. 그 밖에도 해양 자료를 기증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해양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학계·산업기술계·문화예술계·정계의 인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가히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인들의 의지, 인내, 땀 등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된 순간, 대부분의 해양인들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자축하면서 감동만 하고 있기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앞날이 너무 불확실하다. 사실 이제야 반듯이 건물이 세워지고, 개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며, 전시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혹은 제대로 제정되고, 확립되며, 확보된 것이 없다. 관리운영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해양 문화와 해양사의 발굴, 보존유지, 전시, 연구 등에 대한 경험이 적은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해양인들에게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이 옛 선박으로 무중항해(霧中航海)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의 미래는 자욱한 아침 해무 속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밝아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한 여론이 드세지고 있어, 정치계의 공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같은 해양영토 문제, 소말리아 해적 같은 해상테러 문제, 작은 태풍과 기름 유출과 같은 해양환경 문제, 그 밖의 해양 관련 학문과 해양산업기술 문제 등으로 해양이 국내외 핫이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지만,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국민의 수도 많이 증가한 것 같다. 해양스포츠, 해양관광, 해양체험 등으로 바다를 알려 하고 바다에서 즐길 줄 아는 국민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 비유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키우는 데 필요한 거름들이다.



문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누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이다. 일차적으로는 박물관 직원과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들 수 있다. 그들이 초창기를 개척해가는 선구자적인 사명감과 굳은 의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박물관의 발전이 좌우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해양인들을 들 수 있다. 해양산업기술계, 해양관련 학계, 해양관련 문화예술계, 해양을 통해 먹고 사는 일반 국민, 이 모든 해양인은 국립해양박물관을 긍지와 자존심의 상징으로 여겨 직·간접적인 도움을 꾸준히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해양인들이 계속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발휘하여 국립해양 박물관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다시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김주식(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한국적인 문화의 원형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장식해 왔으며, 삶에 대하여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가짐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인 전통 해양 문화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이자 우리의 정겨운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종합 해양 박물관이다. 해양문화 · 항해선박 · 해양생물 · 해양체험 · 해양산업 · 해양영토 · 해양과학 등 미래 삶의 터전인 해양을 이해하고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현재 조선 해양 분야의 실체인 선박 건조 과정을 보고 매우 기뻐다. 선박의 모형선과 그 설계에서 시운전까지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나열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특이할 만한 행사로서 바다의 풍요로움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즐거움이 가득한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등대 설명, 해양 생물 관찰, 이순신 장군의 업적으로 거북선 만들기, 우리 땅 독도 만들기로 어린이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코너라고 생각된다.

오륙도가 마주하고 있으면서 부산항 어귀에서 개관된 “살아 있는 숨 쉬는 연안”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우리 해양 문화유산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와 바다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내외 유물, 당시에 사용하였던 실물 전시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많은 작품과 유물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며, 살아있는 체험관으로 해양 관련 행사 및 보고 즐길 거리도 많아 우리 해양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거대한 국립해양박물관의 위용 속에서 잊혀진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기를 바란다.

즐거움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선조들의 해상 활동으로는 전통 한선인 통신사선을 고증 복원 전시하여 선조들의 문화유산의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또한 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 과학 기술의 창달에 기여하며, 전통 해양 문화의 질적인 위상을 높여주고, 어린이들과 국민들에게 해양 과학을 통한 부산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우리나라 무역왕인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 무역 활동을 비롯하여 우리가 과거에 흥미를 갖고 보아온 바이킹과 당시의 사람들이 해양을 항해할 때에 적어 놓은 표류기, 조선 기행문인 항해기의 기록은 처음 접해 보는 자료들이다.



이창익(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선해양학과 교수)

박물관 둘러보기

국립해양박물관 속의 또 다른 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어린이박물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인기 코너이다.

어린이들만의 또 다른 세계 어린이박물관은 체험과 실물전시를 통해 바다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남극펭귄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공간동화를 따라 바다와 환경을 경험하고 연안탐사, 항만활동, 심해활동 등의 체험활동과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다양한 체험활동

어린이박물관은 바다와 만난 아이들, 바다를 누리는 아이들, 바다와 통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직 생소한 바다에 대한 지식을 어린이박물관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와 가까워진다.

직접 기계를 돌려 밀물 썰물을 만들어 보고 어린이가 뛰어놀아도 안전한 고무재질로 만들어진 폭신한 우리나라 지도 위에서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알아보고 문어, 주꾸미 등의 인형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에 어떤 생물이 많이 있는지 알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컨테이너 기계를 조종하고,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색다른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컨테이너나 선박에 관해서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등대도 보고 직접 등대를 그려보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그린 등대 그림은 한쪽 벽면에 전시해 놓는다. 키즈 퍼포먼스는 어린이박물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미술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어린이가 도우미로 참여해 직접 미술을 하게 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4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예약은 방문예정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지만 인기가 많은 코너인 만큼 좀 더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현장예약은 평일에는 비교적 빈자리가 많아 관람 할 수 있으나 주말은 관람객이 많으므로 조금 더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박물관에서 만드는 소중한 추억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놀이시설로 이루어진 어린이박물관!

가족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을 오기로 계획했다면 사전예약을 하여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박물관이다. 어린이박물관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진예슬(국립해양박물관 전시운영1팀장)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 박물관 내 숨은 전시관 '해양도서관'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독서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 것이다.

해양의 역사와 문화, 과학, 환경 등을 포괄하는 해양도서관은 학생에게는 체험교육장의 역할과 성인에게는 평생교육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해양도서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다양성이다. 도록, 도서, 잡지만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포스터, 브로셔, 세미나 자료 등과 같이 박물관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자료 등, 앞으로 박물관 내부에서 개최된 중요 기록물들을 빠짐없이 소장, 관리되도록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에 가면 특별한 '독도'를 만날 수 있다. 현재까지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운영중인 위치와 신규로 건설될 곳에 이름을 딴 4개의 세미나실(독도, 이어도, 가거도, 백령도)이다. 세미나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1회 2시간이며, 1개실 당 최대 8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단순한 기관내 도서관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내 최대 전문해양 도서관으로 박물관 내 지식 융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도서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전시와 관련한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후기를 정리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생겨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석이조의 공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해양도서관은 '2012년 독서의 해'와 '독서의 달'을 맞이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해양도서관 051)309-1762 / 1752, <http://library.nmm.go.kr>)

이연재(국립해양박물관 운영팀 사서)





기획전시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일시 2012년 11월 29일 ~ 2013년 3월 31일(4개월)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해양박물관은 오는 11월 29일부터 갯벌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갯벌생물 표본, 갯벌채취도구 등을 한자리에 모아 기획전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독특한 한국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갯벌은 강물과 바닷물에 실려 온 흙과 모래가 수천 년 동안 조금씩 쌓여 형성되었는데 한국의 갯벌은 약 5,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공급된 퇴적물과 해수면 상승, 조류, 파도 등과 리아스식 해안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

광활한 서남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독특한 갯벌생물들이 진화해온 천혜의 서식지로, 대대로 풍부한 바다와 갯벌에 얽힌 다양한 문화와 생활이 발달해 왔다.

갯벌은 멀리 시베리아와 호주를 오가는 철새들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자 생명선으로, 한국의 갯벌을 찾는 물새들은 약 150종에 이른다.

〈물길〉 심영보

이렇게 형성된 갯벌은 많은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왔다. 또한 강을 통해 배출된 오염을 정화하고, 홍수와 태풍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우리 삶에 소중한 갯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전시의 구성은 총 3부로,

1부는 갯벌을 소개하고 갯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표정을 보여주는 ‘삶을 담은 갯벌’로 구성된다. 2부 ‘생명을 품은 갯벌’은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사진과 표본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의 9대 갯벌에서 조사된 생물의 총 수는 851종으로, 갯벌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독특한 생존방식을 터득한 이들 생물들은 갯벌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다. 3부 ‘경이로운 갯벌’에서는 우리의 손끝발끝으로 느끼고 바라보았던 갯벌이 아닌 하늘에서 보는 갯벌을 소개한다. 또한 바다와 갯벌 생물을 그린 장한중의 어해도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물고기와 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갯벌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소개하고, 전국 각지의 갯벌과 습지체험센터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한국의 갯벌과 그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갯벌의 소중함을 흠뻑 느껴보길 기대한다.

김윤아(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갯벌〉 이항우

소장품 이야기

조선통신사선

朝鮮通信使船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 내에 전시되고 있는 조선통신사선(이하 "통신사선")은 통신사선 중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게 복원된 선박으로 실제 선박의 1/2 크기의 규모로 복원·건조된 선박이다. 선박을 복원하기 위해 국내 고선박 전문가들의 자문과 통신사선에 관한 문헌·그림·자료 등을 바탕으로 설계·건조·단청 등 모든 제작과정을 고증하여 건조한 첫 복원 선박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원된 통신사선은 현존 문헌자료 중 가장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와 『사행록』(『使行錄』), 『헌성유고』(『軒聖遺稿』) 및 일본에 남아 있는 그림·문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박의 크기 및 단청 등을 검토·연구하였으며, 또한, 통신사선 설계·건조에는 문헌자료 수집 외에 수중발굴을 통해 발굴된 고선박 유물을 보존처리 후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된 고대 선박의 구조, 결구법 등과 같은 실물자료를 확보하여 설계·건조에 반영해 보다 원형에 가까운 선박을 복원·제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건조한 통신사선은 1811년 통신사 사행 중 가장 마지막 사행을 수행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 복원·제작하였다.

복원한 통신사선은 조선 순조 때(1811) 정사 김이교를 대표로 부사 이면구, 제술관 이현상 등 모두 약 300여 명의 통신사 일행을 태우고 대마도에 가 도쿠가와 이에나리(1787~1837)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항해를 하였으며,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일본 내 국학운동의 영향으로 점차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지는 정한론(征韓論)이 대두하면서 더 이상의 통신사 사행은 없어지게 되었다.

양국 간 사행이 중단되기 전 통신사선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고구마·고추·토마토와 같은 농산물이 도입되었으며 18세기경에는 일본의 개화과정을 목격한 통신사 수행원 등을 통해 해외무역의 중요성을 전파해 당시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사선은 조선 선조부터 순조 때까지 약 250년간 12회에 걸쳐 파견되어 양국 간 평화관계와 문화교류 및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한 통신사들을 운반한 외교선박으로 조선시대 일반적인 선박보다 크고 화려한 의장을 갖춘 선박으로 당시 일본의 조선기술 보다 앞선 건조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선이다.

차인철(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관)



1. 저판(본판)제작



2. 선수, 외판 설치



3. 선미, 키 설치



4. 외판 및 가목 설치



5. 종량제 설치



6. 갑판 설치



7. 선실 제작



8. 채색(단청)

박물관 사람들

Miracle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의 일상이 삶의 한 부분이 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개관하자마자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밀려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타는 듯했던 여름도 가고 이제는 어느새 가을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박물관에서의 하루는 1층 출입구를 열면서 시작됩니다.



해안데크 앞바다가 햇살에 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양중맞게 솟아 있는 오륙도와 그 뒤로 펼쳐지는 지평선을 보노라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이보다 더한 아침을 누가 선사할 수 있을까하는 감동까지 받습니다.

혹자는 박물관이 '정체된, 시간이 멈춘 곳'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토마스 바일레 작품의 주제처럼 연속성과 일상이 주는 기적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 9시에 개관하고 오후 6시에 폐관하는 평이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박물관은 나름의 시간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관람객들 또한 그 속에서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드나들며 그들의 관람 에티켓과 예술과 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너무나 익숙하고 나아가 예술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스케치북과 펜으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꼬마 아이들, 부모님께 마치 자신이 큐레이터라도 되는 마냥 작품의 연대 및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학생들, 5, 6세로 보이는 꼬마 단체 관람객들의 성숙한 관람 태도는 '이것이 선진 문화구나!' 라는 생각은 물론 한국인들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라는 의구심도 가지게 했습니다.

박물관에 몸 담은 지 6개월 남짓, 관람객들의 기대 이하의 관람태도에 실망도 했지만, 9시에 개관해서 6시에 폐관하는 동안 박물관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관람객 중, 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은 개관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즈음 박물관을 무려 9번이나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박물관이란 곳을 와 보셨다면 처음에는 관내에서 뛰어다니고 사진 촬영 시 플래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람 기본 예의에 대해 생각조차 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2번 3번 횡수를 더해가면서 기본 에티켓이며 몇 차례 반복해서 보았던 유물 또한 달리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9번을 방문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며 계속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박물관을 아끼는 마음이 여느 직원들보다 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전 9시에 1층 출입구를 열며 하루를 시작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하루가 아니고 내일의 하루와도 같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하루 또한 어제의 하루와는 다름을 느끼고 나아가 관람객들 옆에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봅니다.

길혜진(국립해양박물관 대외협력팀장)

박물관 교육행사

사이언스 바다누리

7~12월 매주 목요일 16:00~17:30 | 초등학교 4~6학년 15명 | 제3강의실 | 인터넷 접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해양과 과학을 접목시켜 해양과학 전반에 걸친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여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 기	기본내용
10월 25일	기본내용바람의 생성원리(기압차)
11월 01일	육풍과 해풍원리계절풍과 동·서해안기후
11월 08일	지구의구조와 판의형성
11월 15일	해구와 해령 및 지진대와 화산대
11월 22일	바닷물은 왜 짠가?
11월 29일	이온결합화합물 형성원리 및 특성
12월 06일	세포형성의 원리(밀러실험 분석)
12월 13일	단세포에서 다세포 (유전·진화·멘델법칙)
12월 20일	별의 생성과 빅뱅이론
12월 27일	별자리(성도)보는 방법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초청강연

주 제 |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11월 22일(목) 14:00~16:45 | 1층 대강당 | 300여명 | 무료 | 인터넷 접수

강연일정

구 분	시 간	운영내용
강의 I	14:00 ~ 15:15	김웅서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비한 심해생물을 만나다.'
강의 II	15:30 ~ 16:45	명정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바다의 목장에서 미래를 보다.'



박물관 소식



한가위 특별프로그램 2012.10.1.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민속놀이 체험과 가족영화를 무료상영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대강당에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되어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 2012.10.24.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전 국민의 인기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영도구편'이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주민 3,000여명이 방문해 전국노래자랑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영도구편'은 2013년 1월 중 방영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0일기념, 4D 무료 상영 2012.10.16

10월 16일,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00일을 맞아 4D 무료상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16일 방문한 울산 수연복지재단 어린이와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4D 영상관에서 '해피피트'를 관람했습니다. 작은 이벤트였지만 오랫동안 간직될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현장답사프로그램 '이순신이 선택한 땅 통영, 그의 바다를 걷다' 2012.10.27.

10월 27일,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진행된 첫 현장체험학습 「이순신이 선택한 땅 통영, 그의 바다를 걷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북선을 체험하고 국보로 지정된 세병관과 통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 역사관을 관람하였고 오후에는 배를 타고 한산도 제승당을 답사하였습니다. 오재선 문화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통영의 역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유적지들을 살피며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제3회 부산항 빛축제 개최 2012.11.9.~18

다양한 빛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부산항 빛축제'가 11.9 ~ 18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입체조형물과 루미나리에, 빛 주제관을 통해 빛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람후기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 2박3일간 3학년부터 6학년 20명의 아이들이 향도 부산으로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첫 방문 장소는 올해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이었다. 교과서로 배웠던 조선통신사선을 1/2크기로 복원한 전시물과 조상들이 사용하던 고깃배의 모습을 실제로 보며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며 만들었던 제사용 배를 보며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경외심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땅을 지켜주는 이어도 과학기지와 바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관측기구를 보며 미래의 새로운 생활 터전이 될 바다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다.

작지만 알찬 수족관의 다양하고 신기한 물고기들을 보며 아이들의 눈은 놀라움에 커졌고, 화면에서 튀어나올 듯이 실감나는 3D영상에 주인공의 움직임에 맞추어 함께 움직이는 의자, 볼을 스키치는 바람, 두 뺨을 적시는 물방울까지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던 4D영상물을 보며, 재미와 더불어 인간의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 가는 펭귄들이 주는 메시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생'이라는 메시지를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푸드코트에서 깔끔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은 박물관 앞 공원에서 쉬면서, 해양대학교 옆으로 펼쳐진 바다, 항구들, 수많은 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다의 내음과 부서지는 햇살,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를 즐기며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해양도시 부산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혜도가 부족한 산골마을 아이들에게 있어 이번 국립해양박물관 방문은 쉽게 경험 할 수 없었던 해양전시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 봄으로써 해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북돋아 줄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 언급되어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 장소를 실제로 방문해 보고 체험해 보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촌마을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해양에 관련된 다양하고 알찬 자료를 구비한 국립해양박물관측과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로 안내해 주신 해설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형래(함양 병곡초등학교 교사)



1. 전시해설을 들으며 조선통신사선 앞에서
2. 3층 항해선박, 「바다의 신비」 유물 앞에서
3. 해안데크에서 기념사진 촬영!